

강진군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선정

내달 1일부터 시행...소 사육농가 보험가입료 50% 지원

오는 28일 강진완도축협서 사업 설명회...11월 말까지 접수

강진군이 가축이 질병과 상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와 NH농협은행이 시행하는 가축 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전담수사가 축산농가

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가축질병을 진단·처치·처방 및 투약하여 치료하고 소요된 비용을 국비 50%와 농가자

부담 50%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개소(정주시, 함평군)에서 올해 4개소(강진군, 보은군, 함천군, 제주시)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군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강진완도축협 회의실에서 농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보장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매년 갱신이 필요하고, 적용가축은 송아지·비육우·한우번식우·젓소가 해당 축종이며 가축사육업(허가)등록 농가로서 무허가 축사는 가입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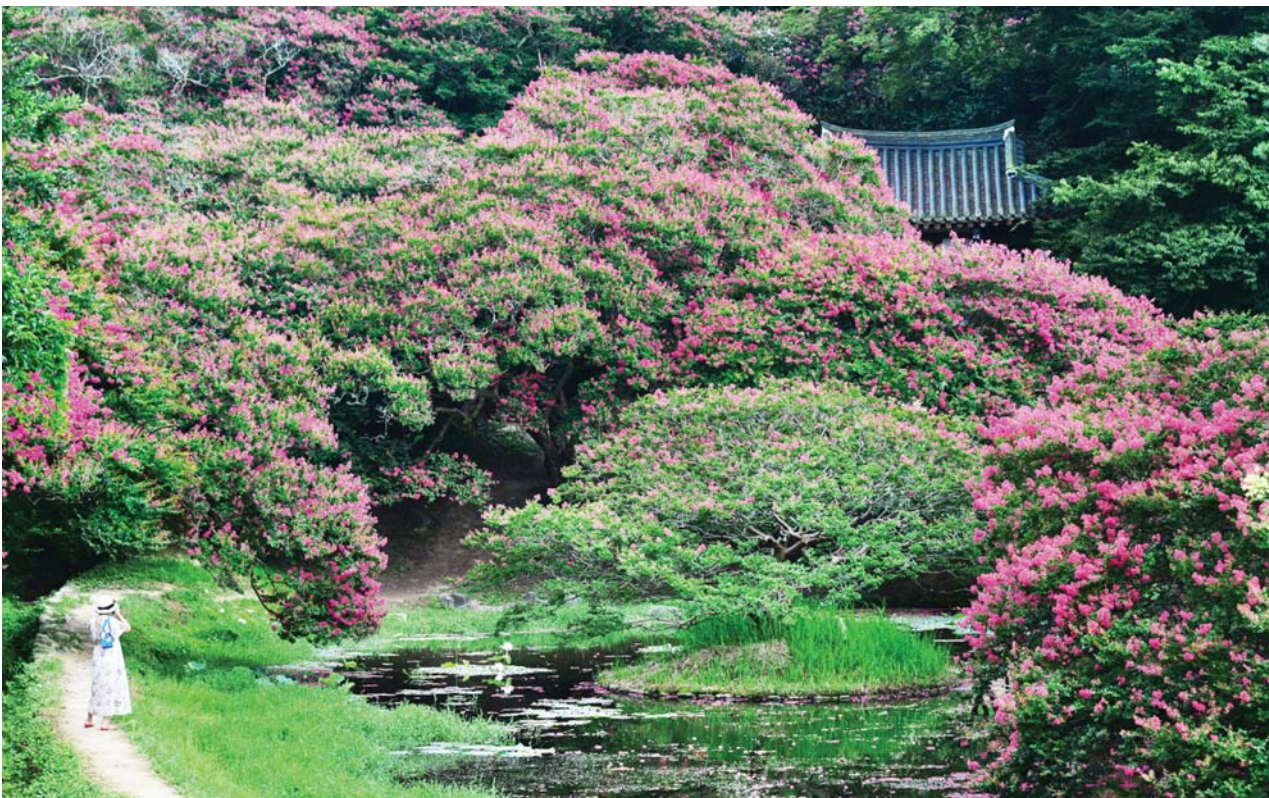
보장 질병은 송아지는 설사·장염·장출혈, 폐렴·수송염·기관지폐렴, 관절골관절염, 골절 등 4개 유형이고, 비육우는 요결석 등 8개 유형, 젓소는 난소낭종, 자궁체적 등 5개 항목인데 비해 한우 번식우는 28개 유형으로 모든 질병이 대상이다.

보상한도는 진료 유형에 따라 평일 적게는 5만원부터 야간 52만원까지 차등 보장된다.

강진군은 이 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규모 확대와 말집사육 영향으로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적정 조치를 못해 과다한 치료비와 축산물 품질하락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소 사육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가축질병치료보험은 질병의 조기 예방과 가축 폐사로 인한 손실을 줄여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가 가입률을 높여 보다 많은 소 사육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백일홍 만개한 담양명옥헌 원림
 절기상 처서를 앞둔 20일 담양 고서면에 위치한 명승 제58호 명옥헌 원림에 백일홍이 활짝 피어있다. 명옥헌은 조선 중기 명곡(明谷) 오희도가 자연을 벗 삼아 살던 곳으로 그의 아들 오이정이 이곳에 은둔하며 자연경관이 좋은 도장곡에 정자를 짓고, 앞뒤로 네모난 연못을 파서 주변에 적송, 배롱나무 등을 심어 거문 정원이다.

절기상 처서를 앞둔 20일 담양 고서면에 위치한 명승 제58호 명옥헌 원림에 백일홍이 활짝 피어있다. 명옥헌은 조선 중기 명곡(明谷) 오희도가 자연을 벗 삼아 살던 곳으로 그의 아들 오이정이 이곳에 은둔하며 자연경관이 좋은 도장곡에 정자를 짓고, 앞뒤로 네모난 연못을 파서 주변에 적송, 배롱나무 등을 심어 거문 정원이다.

영암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추가 예산 8억4백만원 확보 약500여대 지원 계획

영암군은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이달 26일부터 하반기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발생 오염원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관내 미세먼지를 농도를 저감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행

되는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조치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올해 상반기 3억2천160만원을 들여 약 260여대의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상반기에 참여도가 높아 추가 예산 8억4백만원을 확보하여 약 500여대를 추가적으로 지원 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



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써 체납이나 압류가 없고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본인 소유의 차량이 해당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작성한 후 9월 30일까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차량소유자 신분증, 중고자동차성능검사기록부 등)를 첨부해 방문 제출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 시 폐차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군 관계자는 "대기오염 주원인인 노후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대상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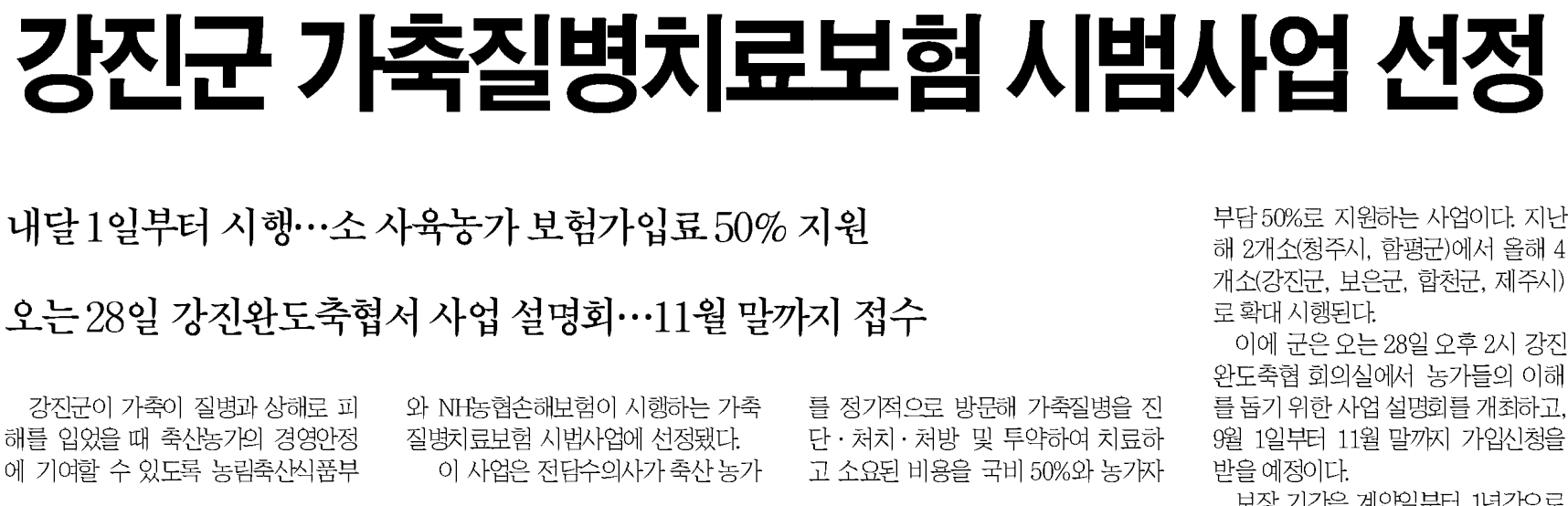
염영호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애복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곡성군, 찾아가는 치매예방 프로그램 호응

15개 건강팔팔마을 찾아 '놀이' 통한 예방법

곡성군은 치매예방을 위해 10월까지 15개 건강팔팔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은 의료적 처치나 심리치료 등이 아니라 '놀이'를 통한 예방법이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심리적 안정을 주는 요가, 우리 가락에 맞춰 추는 우리 춤, 유행가 가사에 맞는 율동제조 등을 신나게 따라 하거나 해도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공놀이, 비석치기, 공기놀이, 투호놀이, 다슬기 수제비 만들기

어머님 등 다양한 추억 회상 놀이도 진행한다.

군은 활동을 통해 어릴 적 추억을 회상하며 소근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지 능력 저하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마을회관에서 이웃들과 함께 어울리며 이야기도 나누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매예방법"이라며 "치매없는 곡성을 만들도록 더 많은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참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곡성=김광희 기자

햇빛광양 시티투어, 가을코스 운영

내달부터 진행... "광양의 숨은 가치 발견 의미있는 여행"

광양시는 가을의 문턱에 접어드는 9월부터 낭만적이고 감성 가득한 햇빛광양시티투어 가을코스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양시티투어는 오전 9시 20분 순천역을 출발, 광양버스터미널과 중마관광안내소를 거쳐 백운산휴양림, 와인동굴, 구봉산전망대, 운동주유고보존 정병국 가옥 등을 차례로 둘러보고 오후 5시 45분 순천역에 도착하는 코스로 진행된다.

정영미 관광마케팅팀장은 "가을에

준비한 햇빛광양시티투어는 광양의 숨은 가치를 발견하는 의미 있는 여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부터 운영된 2019 햇빛광양시티투어는 계절에 어울리는 특별한 코스로 여행자들로부터 점차 인기를 끌며 광양의 매력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매주 주말 예약인원이 10명 이상일 때 운영하며, 평일에도 20명 이상 단체 예약할 경우 운영한다.

광양=김승호 기자